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현황 분석

An Analysis of Current Music Curriculum in Arts High Schools

김효경*

Hyokyeong Kim 

초록 본 연구는 전국 19개 예술고 음악과의 교육과정을 문헌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음악 선택 과목 편성의 양상과 학교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19개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문서를 수집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 3개년 음악 선택 교과목과 배당 학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19개 모든 예술고가 고시 외 과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학교는 기존 고시 내 과목을 학기별로 세분화하는 방식에 머물러 교육과정 다양화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시창·청음’, ‘전공 실기’, ‘공연 실습’, ‘합창·합주’ 과목은 공통적으로 운영되는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의 도입은 제한적이었다. 셋째,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과 선택 과목 개설 수는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시 외 과목 운영의 질적 개선, 융합 선택 과목의 확대,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목 편성 및 학점 배당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주제어: 예술고등학교, 음악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미래 예술 인재, 음악 전공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music curricula of 19 arts high schools in South Korea through document analysis, focusing on patterns in music elective organization and school-level characteristic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Curriculum documents publicly available through School Information were collected, and music elective subjects and credit allocations for students entering in 2025 were comparatively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schools offered non-national curriculum subjects; however, in many cases, these were limited to semester-based subdivisions of existing national curriculum subjects, indicating that the intended purpose of promoting curricular diversification has not been fully fulfilled. Second, sight-singing and ear-training as well as major performance were offered in all schools, while performance practicum and choir/ensemble were available in most schools, indicating that a practice-centered curriculum structure remains firmly established. In contrast, convergence elective subjects were relatively limited. Third, substantial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schools in both the credit allocation for major performance and the number of elective subjects offer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enhance the quality of non-national curriculum subjects, expand convergence elective offerings, and establish minimum common standards for subject organization and credit alloca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coherence of the music curriculum in arts high schools.

Key words: arts high school, music curriculum, high school credit system, future arts talent, music major

* First author, E-mail: fluteacher@snu.ac.kr

Student Researcher (Ph.D. Degree Course),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usic Education, 1 Gwanak-ro, Gwanak-gu, Seoul, South Korea

Received: 31 August 2025, Reviewed (Revised): 17 April 2026 (4 May 2026), Accepted: 15 May 2026

© 2026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었다. 고교학점제는 학점 기반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과정 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Kim et al., 2018). 이는 고등학교의 기존 교육과정 구조를 재검토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재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르면 예술고등학교(이하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예술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고인 서울예술고등학교가 1953년 개교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Chu, 2018). 예술고는 예술 분야의 재능과 소질을 지닌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술 교육을 제공하여 예술적 역량을 개발하고 미래의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조기교육 기관이다.

예술고의 교육과정은 일반고등학교의 기초교과목 이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로서의 역할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과 학점 운영에 구조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Jeong, 2020).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예술고는 설립 이후 교육 정책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예술교육의 방식을 계속해서 조정해 왔다(Chu, 2018; Huh, 2023; Jeong, 2020).

예술고는 전문적인 예술 역량 함양을 목표로 예술계열의 전문교과 I를 많이 개설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전문교과 I란 특목고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제시된 이수 과목을 말한다(Lee & Lee, 2022). 그 가운데 예술고의 음악과는 전문교과 I에 해당하는 ‘전공 실기’, ‘시창·청음’, ‘합창·합주’, ‘공연 실습’ 등의 과목을 학년에 따라 누적하여 위계적으로 편성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전문교과 I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보통교과로 통합되어 일반고에서도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이로써 학생의 선택에 따라 일반고에서도 전문교과를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예술고의 경우, 기존의 전문교과 I 중심의 음악과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기존 편성 방식과 운영 논리에 제도적 긴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과 학점 운영 방식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요구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음악 선택 과목 선정과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Park & Kim, 2021).

그러나 해당 연구는 음악 선택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와 운영 방안에 초점을 둔 것으로,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예술고와 같은 특목고의 교육과정 구조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다루지지 않았다. 또한 고등학교 전문교과 I의 개설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교과 I의 교과목 재구조화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으나(Lee & Lee, 2022),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인 연구학교 운영 시기를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 이후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반영하는 데에는 아쉬움을 지닌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된 현 시점에서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특목고로서 예술고 음악 교육의 역할과 한계를 재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을 기준으로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대상 및 시기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 19개 예술고등학교 음악과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고교학점제와 예술고등학교 음악과의 운영 사이에는 실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2022 개정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술고 음악과 고유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음악전문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나타낸다. 예술고 교육과정은 창의적인 전문 예술인 육성을 위한 교육 목표가 반영되어야 하며 대학 입학전형에 부합하는 동시에 전문적인 이론 학습과 전공별 체험활동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편성 및 운영될 필요가 있다(Cho, 2013). 이와 관련하여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Ahn et al., 2024; Cho, 2012; Lee & Choi, 2014). 예술고는 일반고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므로 예술고에서만 구현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hn et al., 2024).

이는 단순히 입시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학생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과정으로 나아갈 필요성까지도 연결된다.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과 층위의 연결과 통합을 통한 융합 교육이 필요하다. 예술의 변화는 예술 교육의 변화, 예술과 타 분야의 연결로 이어지므로 예술 융합 교육에 대한 논의를 더욱 본격화하고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Ahn et al., 2024; Kim, 2012; Park, 2018).

이와 같은 흐름은 해외 예술고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수의 해외 예술고는 ‘예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보다 ‘예술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arts)’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예술적 능력 개발과 진로 개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실기와 이론의 균형 있는 교육, 학생의 흥미에 기반한 다양한 교과목 운영, 특성화된 프로그램 도입의 공통적 특성이 나타났다(Choi & Shin, 2014). 영국의 예후디 메뉴힌 학교(Yehudi Menuhin School)는 영어 교과를 보통교과와 전공 교과를 연계하는 과목으로 설정하여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문학 작품과 음악 작품을 통합하여 간학문적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운영은 문학 작품 읽기와 음악 작품 연주가 공통된 예술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음악 전공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예술고의 보통교과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Lee & Choi, 2014).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순수예술을 넘어 대중예술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예술경영, 기획, 공학 등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폭넓은 안목과 진로 역량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hn et al., 2024).

미국의 아이덜와일드 예술학교(Idyllwild Arts Academy)는 재즈 앙상블, 재즈 이론, 영화 음악 제작, 대중 음악 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를 경험할 수 있는 교과목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의 퍼셀 음악 예술학교(The Purcell School)는 실내악과 합창뿐 아니라 재즈 앙상블, 현대 음악 앙상블, 전자 음악 등 여러 앙상블 수업을 제공하고, 심신의 조절을 목표로 하는 알렉산더 테크닉(Alexander Technique)과 같은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호주의 빅토리아 예술고등학교(Victorian College of the arts Secondary School)는 음악 공학 및 음악 자격증 취득과 연계된 교과목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전문 교육과 진로 교육을 연계하는 특징을 보인다(Hyun & Hong, 2016).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비교할 때, 국내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새로운 전공 영역이나 교과목의 도입이 제한된 채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지닌다.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국내 예술고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 중심의 논리에 의해 전공 기능 위주로 고착되면서 다양한 음악 장르 경험과 융합적

탐구, 진로 연계형 학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 경험의 폭이 제한되고, 변화하는 예술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Ahn et al., 2024; Choi & Shin, 2015; Jeong, 2020).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예술고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2. 2022 개정 고등학교 음악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2025학년도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강조하는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대학생이 대학에 개설된 과목 중 흥미와 전공에 따라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정해진 학점과 조건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는 것과 같이 고등학생도 자신이 선택한 과목으로 학습하고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기존의 단위 중심 체계에서 학점 중심 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등학교 음악 교과는 보통교과 중 선택 과목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교과목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체계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세분화되면서 과목의 신설 및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Table 1>. 일반 선택은 음악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목적으로 하며 진로 선택은 음악 전공별 심화 학습과 진로 연계를 강조하고, 융합 선택은 음악 관련 사회·문화적 소양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이 중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은 예술계열 진로 선택과 예술계열 융합 선택이 추가로 분류되어 구성되어 있다<Table 2>.

<Table 1>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High school music

2015 Revised Curriculum		Content
Common subjects	General electives	Music
	Career electives	Music performance and composition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Specialized Curriculum I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Choir and ensemble Major performance, Performance practicum

<Table 2>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 High school music

2022 Revised Curriculum			Content
Common subjects	Elective subjects	General electives	Music
		Career electives	Music performance and composition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Convergence electives	Music and media
		Career electives (art courses)	Music theory, Music history,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Choir and ensemble Major performance, Performance practicum
		Convergence electives (art courses)	Music and culture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 I 에 편성되었던 ‘음악사’, ‘음악이론’, ‘공연 실습’, ‘시창 · 청음’, ‘합창 · 합주’, ‘전공 실기’의 과목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의 예술계열 진로 선택에 편성되어 재구조화되었으며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음악과 미디어’와 ‘음악과 문화’가 신설되었다.

고등학교의 일반 선택 과목인 ‘음악’은 초 · 중등학교의 공통 교육과정 ‘음악’의 연주, 감상, 창작 영역의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 적용, 연계, 향유, 소통, 성찰 등의 관점이 강조되어 설계되었다. 진로 선택 과목인 ‘음악 연주와 창작’과 ‘음악 감상과 비평’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으로 학습자의 실질적인 진로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구성되었다. 융합 선택 과목 ‘음악과 미디어’와 ‘음악과 문화’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 융합적 역량 함양을 위해 설정된 과목으로, 음악과 내 여러 영역을 연계하고 실제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Jang et al., 2025).

특히, 융합 선택 과목인 ‘음악과 미디어’는 2009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과 매체’와 관련된다. ‘음악과 매체’는 학교 현장에서 저조하게 선택되고 있었으며, 선택한 학교에서도 2007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컴퓨터와 음악’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교육과정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폐지되었다(Jang et al., 2025; Lee, 2015). 이후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매체와 인공 지능 학습 환경 조성이 강조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음악과 미디어’라는 명칭으로 다시 개설되었다(Jang et al., 2025).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특목고 대상의 전문교과 I 를 보통교과로 편입 · 통합한 것은 일반고의 학생들도 진로와 적성에 따라 기존의 전문교과 I 과목을 선택 가능하도록 함에 있다. 선택 과목의 확대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비슷한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잠재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1). 또한 융합 선택 과목을 새롭게 개설한 것은 예술 계열 교과가 전공 기능 위주의 내용에서 벗어나 삶과의 연계,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Ahn et al., 2024).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예술계열 음악 선택 과목은 음악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과목을 말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예술계열 진로 선택 과목의 영역은 전문적인 음악 내용과 활동을 기반으로 이를 실제 음악에 적용, 확장,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구성되며 예술계열 융합 선택 과목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적 이해를 기반으로 삶 속 여러 분야에서 교류 및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구성된다.

예술계열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은 각 과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음악이론’은 분석력과 문제해결력을, ‘음악사’는 통찰력과 내면화, 성찰 능력을 신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시창·청음’은 각 음을 감지하고 구분하는 감식력과 악보를 읽고 쓸 줄 아는 음악적 문해력을 강조하며, ‘전공 실기’는 각 전공별 연주력과 고유의 표현력과 독창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며 ‘합창·합주’는 자신의 소리와 동료의 소리를 듣고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는 협력과 연주 협업 능력을 강조한다. ‘공연 실습’은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포용력과 융합력의 함양을 지향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융합 선택 과목인 ‘음악과 문화’는 예술과 인문학적 요소의 통합을 목표로 하며, 문화적 탐구와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단일 전공 중심의 교육에서 나아가 예술과 사회, 문화 간 연결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융합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음악과 선택 과목 체계 개편은 학생의 선택권과 진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술계열 교과의 성격을 전공 기능 중심에서 삶과 사회를 연결하는 융합적 학습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범위는 전국 국·공·사립 예술고등학교의 19개교이다. 현재 전국에 25개의 예술고가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 주체에 의하면 국립 2개교, 공립 11개교, 사립

12개교가 있다. 전국 25개의 예술고 중 본 연구를 위한 예술고 선정 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반영되었다.

첫째, 예술계열 일반고를 제외한 특목고에 해당하는 예술고를 선정하여 특목고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술고를 연구 범위로 구성하였다.¹⁾ 둘째, 각 예술고가 지향하는 교육 내용과 예술 장르의 범주를 정통 순수예술(음악, 미술, 무용)과 대중예술(연극영화, 연기, 문예창작,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등)로 구분하여 국내 국·공립, 사립 예술고 중 초기의 예술고 설립 방향성을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긴 역사성을 가진 정통 순수예술 중심의 예술고를 연구 범위로 한정하였다.²⁾ 선정한 19개의 예술고 중에는 정통 순수예술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대중예술 학과를 개설한 예술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셋째, 단독 전공을 전문교육하는 예술고³⁾는 제외하여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선정하였다. 선정한 19개 예술고를 지역과 설립주체, 설립연도, 개설 전공에 따라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Arts high schools (Special purpose high schools) in South Korea, 2026

Region	Arts high school (AHS)	Founding body	Established year	Departments			
				Music	Fine arts	Dance	Popular arts ⁴⁾
Seoul	Seoul AHS	Private	1953	○	○	○	
	Sunhwa AHS	Private	1974	○	○	○	
	Deokwon AHS	Private	1992	○	○	○	
Gyeonggi	Kaywon AHS	Private	1980	○* ⁵⁾	○	○	○
	Anyang AHS	Private	1982	○	○	○	○
	Gyeonggi AHS	Public	2002	○	○		○
	Goyang AHS	Private	2005	○	○	○	○
Busan	Busan AHS	Private	1985	○	○	○	
	Peniel High School of the Arts	Private	1998	○	○	○	
Daegu	Gyeongbuk AHS	Private	1964	○*	○	○	
Incheon	Incheon AHS	Public	1997	○	○	○	
Gyeongnam	Gyeongnam AHS	Private	1990	○			○
Gwangju	Gwangju AHS	Public	1983	○	○	○	

1) 일반고로 전환된 예술고는 김천예고(2019년 전환), 대전예고(2021년 전환), 울산예고(2022년 전환), 전주예고(2025년 전환), 포항예고(2019년 전환)이다.

2) 대중예술 중심의 예술고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사립)가 해당된다.

3) 국립전통예술고(1960 설립, 국립), 국립국악고(1955 설립, 국립), 진도국악고(1982 설립, 공립), 충남디자인예술고(1971 설립, 공립),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1974 설립, 공립)가 해당된다.

<Table 3> Continued

Region	Arts high school (AHS)	Founding body	Established year	Departments			
				Music	Fine arts	Dance	Popular arts
Jeonnam	Jeonnam AHS	Private	1989	○	○	○	
	Korea High school of Creative Arts	Public	2020	○*	○**6)		
Gangwon	Gangwon AHS	Public	2000	○	○	○	
Chungbuk	Chungbuk AHS	Public	1993	○	○	○	
Chungnam	Chungnam AHS	Public	1996	○	○	○	
Sejong	Sejong AHS	Public	2018	○*	○		○

Korean traditional arts focused arts high schools: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est. 1960, national)

Gugak National High School (est. 1955, national)

Jindo Gugak High School (est. 1982, public)

Fine arts focused arts high schools:

Chungnam Design Art High School (est. 1971, public)

Korea Art and Design High School (est. 1974, public)

Popular arts focused arts high school:

School of Performing Arts (est. 1966, priv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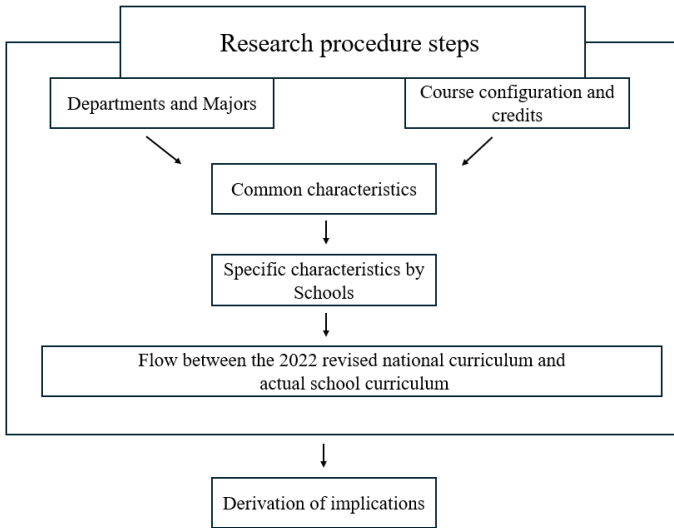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에 게시된 교육과정 문서자료를 통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025학년도 입학생 기준의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체제를 근거로 음악과에 편성된 3개년의 음악 선택 교과목과 각 교과목의 배당 학점을 추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교과목 유형, 개설 비율, 배당 학점을 기준으로 학교 간 공통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가 예술고등학교 음악과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Choi & Shin, 2014)의 연구 절차 단계를 참고하였다.

4) 대중예술 학과에는 연극영화, 연기, 문예창작, 사진, 만화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공연예술 전공, 실용음악, 실용무용, 무대미술이 포함된다.

5) *는 정통 순수 음악 중심이나 실용음악 전공이 음악과에 포함된다.

6) **는 정통 순수 미술 중심이나 애니메이션 전공이 미술과에 포함된다.



[Figure 1] Research procedure steps

IV. 연구결과

1.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5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처음 도입되는 시점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학업 부담을 완화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수업량의 적정화이다. 예술고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반고 및 특목고 학점 배당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총 이수 학점인 192학점은 교과(군)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18학점(288시간)을 합한 것이다. 특히,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1학점을 50분 기준 학기당 16회 수업으로 산정하여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이행되던 2023~2024년의 학기당 17회 수업에서 축소하여 수업량을 적정화하였다.

또한 필수 이수학점과 전공 관련 선택 과목 학점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학점보다 축소되었다. 특목고에 해당하는 예술고의 경우, 필수 이수학점은 75학점, 자율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구성되며 자율 이수학점 중 68학점 이상을 전공 관련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필수 이수 학점 75학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

한 필수 이수 학점 85학점에서 줄어든 것이며 전공 관련 선택 과목 68학점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전문교과 I 의 필수 이수 학점인 72학점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Ministry of Education, 2022a). 따라서 특목고에 해당하는 예술고의 경우, 예술 계열 선택 과목을 학생의 전공과 학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다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국 19개 예술고의 음악과 선택 과목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19개 예술고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인 ‘음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3개교(16%)이며, 진로 선택 과목인 ‘음악 연주와 창작’은 3개교(16%), ‘음악 감상과 비평’은 9개교(47%), 예술계열 진로 선택 과목인 ‘음악사’는 14개교(74%), ‘음악이론’은 17개교(89%), ‘공연 실습’은 18개교(95%), ‘시창·청음’은 19개교(100%), ‘합창·합주’는 18개교(95%), ‘전공 실기’는 19개교(100%)이며, 융합 선택 과목인 ‘음악과 미디어’는 2개교(11%), 예술계열 융합 선택 과목인 ‘음악과 문화’는 5개교(26%)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Table 4>.

<Table 4> Music electives operation status of arts high schools

Elective subjects	General electives	Career electives								Convergence electives	
	Music	Music P & C ⁷⁾	Music A & C ⁸⁾	Music history	Music theory	Performance practicum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Choir and ensemble	Major performance	Music and media	Music and culture
Number of schools	3	3	9	14	17	18	19	18	19	2	5
Ratio (%)	16	16	47	74	89	95	100	95	100	11	26

7) Music performance and composition

8)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Table 5> Music electives and three year cumulative credits of arts high schools (2025 music department entry cohort)

School	G.E. ⁹⁾	Career electives								Convergence electives	
	Music	Music P & C	Music A & C	Music history	Music theory	Performance practicum	Sight singing and ear training	Choir and ensemble	Major performance	Music and media	Music and culture
Seoul AHS			2	2	2	20	12	8	28		
Sunhwa AHS		2	2	2	8	14	12	8	28		2
Deokwon AHS				2	14		8	8	44		2
Kaywon AHS					10	18	8	8	26		
Anyang AHS					8	12	12	8	25		
Gyeonggi AHS				2	8	14	8	10	24		3
Goyang AHS	3		3	4		20	7	15	26		
Busan AHS		3	3	2	8	24	12		20		2
Peniel High School of the Arts			3		9	20	13	17	26	3	
Gyeongbuk AHS			2	2	2	15	12	12	29		
Incheon AHS				3	3	6	5	10	50		
Gyeongnam AHS				4	4	12	8	12	40		
Gwangju AHS			3	2	2	12	4	10	38		
Jeonnam AHS	3					6	8	12	48	3	
Korea High school of Creative Arts	2			2	2	12	2	8	56		2
Gangwon AHS					2	6	6	6	58		
Chungbuk AHS				2	3	8	2	10	46		
Chungnam AHS			2	2	2	12	6	12	40		
Sejong AHS		6	2	2	2	9	8	4	40		

2. 예술고등학교 음악과의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 운영과 한계

전국 19개 예술고의 음악과 예술계열 교육과정 모두 고시 외 과목이 포함되어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으로 운영됨을 확인하였다.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은 학교의 필요에 따른 교과목 개설을 보장하고 새로운 교과목 개설을 통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가 교육과정(교육과정 총론)에 고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고시 외 과목’이라 한다. 고시 외 과목은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설하

9) General Electives

고 시·도 교육청이 심의하고 승인하여 운영된다.

또한 고시 외 과목은 교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수학습 상황이나 개별 학습자의 다양한 반응에 대응하여 학습을 돕고, 수업계획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변화를 시도하며 교사의 적응적 실행을 촉진할 수 있다(Jang, 2024).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고시 외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으며 2025.08.27. 기준 교육정보 통합 지원서비스인 에듀넷(EduNet)에서 확인된 고등학교 예술 관련 선택 과목은 총 372개이다(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d.).

타 시·도 교육감 승인을 받아 고시 외 과목을 편성한 예술고 사례를 살펴보면 A예술고는 시창·청음 실습(1~6), 합창·합주(1~4), 공연 실습(1~6), 전공 실기(1~6)¹⁰⁾를 개설하였고 B예술고는 시창·청음(1~6), 공연 실습(1~6), 전공 실기(1~6), 합창(1~4), 합주(1~4)와 음악이론(1~4)을 개설하였다. C예술고는 시창·청음(1~5), 합창(1~4), 합주(1~4), 전공 실기(1~6)와 음악이론(1~4), 음악이론의 실제(I, II)를 승인받아 편성하였다.

신설 승인을 받아 고시 외 과목을 개설한 D예술고는 진로 선택 과목인 ‘음악 연주와 창작’에 ‘음악 연주와 창작 심화’를 추가하여 편성하였고 ‘합창·합주’에 ‘합창·합주 심화’를 추가하여 편성하였다. 또한 ‘시창·청음’에는 ‘시창·청음 심화’, ‘시창·청음 응용’을, ‘공연 실습’에는 ‘시대별 연주 실습’, ‘음악 공연 실습 심화’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시 외 과목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와 달리 기존의 고시 내 과목에 있는 예술계열 진로 선택 과목을 학기별 구분을 위해 과목명에 숫자나 용어를 덧붙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 편성은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학교별 교육과정의 차이는 고시 외 과목으로 개설된 선택 과목의 운영 양상에서 나타났다. 먼저, E예술고는 ‘실내악’(I, 2, 3, 4)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F예술고는 ‘클래식 앙상블’(I, II)과 ‘실용 앙상블’(I, II), ‘화성학’, ‘한국음악사’를 편성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또한 G예술고는 ‘화성학의 실제’(I, I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목 편성은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10) ‘전공 실기’에는 각 학교별 음악과 개설 전공에 따라 피아노, 오르간, 하프, 클래식 기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색소폰,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타악기, 성악, 작곡,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이 포함된다.

3. 예술고등학교 음악 선택 과목 편성의 특징과 융합 선택 과목 운영의 한계

학교별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 수를 분석한 결과, 최소 5과목에서 최대 9과목까지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5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3개교, 6과목은 6개교, 7과목은 6개교, 8과목은 3개교, 9과목은 1개교로 분포되어 있었다. 5과목을 개설한 3개교 모두 ‘음악이론’, ‘공연 실습’, ‘시창·청음’, ‘합창·합주’, ‘전공 실기’ 과목만을 개설하여 과목 수를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8과목 이상을 개설한 학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고루 편성하고 있었다.

예술고등학교 대부분은 실기 중심의 과목을 공통적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시창·청음’과 ‘전공 실기’는 모든 19개교에 개설되었으며, ‘공연 실습’과 ‘합창·합주’도 각각 18개교에서 개설되어 실기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이 핵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음악적인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음악이론’과 ‘음악사’ 역시 각각 17개교와 14개교에서 개설되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은 개설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융합 선택 과목인 ‘음악과 미디어’와 ‘음악과 문화’ 중 ‘음악과 미디어’는 단 2개교에서만 개설되었으며, ‘음악과 문화’는 5개교에서만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융합적 접근이 아직 예술고 교육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악과 문화’는 음악의 본질과 문화적 가치를 경험함으로써 실제 삶 속에서 주체적인 음악 문화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예술계열 융합 선택 과목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22b). 따라서 향후 예술고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적 이해를 바탕으로 타 교과와 예술, 범교과 학습 주제 등과의 연계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음악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융합 선택 과목의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예술고등학교 음악과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 편차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은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전공 실기’는 건반, 성악, 기악, 작곡 등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실기 능력을 심화하고 음악 전공별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전공 실기’는 음악적 기량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음악의 표현과 산출의 과정을 실습하고 결과를 정교화함으로써 자신의 전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19개 예술고 중 1개교를 제외한 18개교에서 ‘전공 실기’ 과목에 가장 많은 학점을 배당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가 상급학교 진

학을 위한 준비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공 실기’ 과목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훈련은 대학 입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19개 예술고 음악과의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2025학년 입학생 3개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학교별 학점 배당은 최소 20학점에서 최대 58학점까지로, 학교 간 38학점에 이르는 큰 편차가 나타났다. 이는 ‘전공 실기’ 과목이 예술고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학점 배당 기준이 학교별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차는 학생의 전공 학습 경험과 교육과정의 질이 학교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국 19개 예술고 음악과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문헌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예술고 음악과 선택 과목 편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은 고시 외 과목을 포함하여 편성·운영되고 있었으며, 선택 과목 개설과 학점 배당 측면에서 학교별 자율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정의 실질적인 다양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고시 외 과목은 기존 고시 내 과목을 학기별로 세분화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융합 선택 과목의 도입은 제한적이었으며,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과 선택 과목 개설 수 역시 학교 간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고시 외 과목은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보편적인 구조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고시 외 과목 제도가 학교 현장에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예술고에서는 ‘실내악’, ‘클래식 앙상블’, ‘실용 앙상블’, ‘화성학’, ‘한국음악사’와 같은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따른 선택 폭을 확장하고 있었으나 다수의 학교에서는 기존 고시 내 과목을 학기별로 세분화하여 고시 외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교육 내용이나 학습 경험의 확장보다는 기존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교육과정 다양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가 예술고 교육 현장에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실기 중심 과목은 여전히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시창·청음’과 ‘전공 실기’는 모든 학교에서 개설되었고, ‘공연 실습’과 ‘합창·합주’ 역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었다. 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융합

선택 과목의 도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과 간 연계와 확장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취지가 아직 예술고 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은 학교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전공 실기’ 과목은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핵심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 학점 배당은 최소 20학점에서 최대 58학점까지 차이가 나타나 ‘전공 실기’의 비중이 학교마다 상이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편차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과 관련된 학습 경험과 교육과정의 질이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별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 수 역시 최소 5과목에서 최대 9과목까지 넓은 분포가 나타났다. 선택 과목 수가 적은 학교는 실기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선택 과목 수가 많은 학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과목을 고루 편성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나 학교별로 선택 과목 개설 수의 차이가 큰 만큼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과목 편성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은 자율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구현 양상은 학교별로 상이하며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한 고시 외 과목 교육과정의 본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예술고 음악과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목 수 확대를 넘어 교육과정 설계의 질적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음악 장르 경험, 융합적 탐구, 진로 연계 학습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함으로써 예술고 음악과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심화해야 한다.

둘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의 낮은 도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의 편성 및 운영상 어려움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융합 선택 과목이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에 편성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융합적 접근이 실제 수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 실기’ 과목의 학점 배당과 선택 과목 개설 수에서 나타난 학교 간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과목 편성 기준과 학점 배당의 기본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간 학점 배당의 차이는 학교의 시설 여건, 지역적 환경, 전공 개설 구조 등 여러 외부 요인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행정가 및 교사,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를 통해 예술고 음악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hn, J., & Jeong, O. (2025). A study on the operational cases of visual arts departments in U.S. art high schools. *Society for Art Education of Korea*, 93, 201-232. <http://dx.doi.org/10.25297/AER.2025.93.201>
- Ahn, J., Kim, J., & Jeong, O. (2024). Current status and operational direction proposals for arts high schools: Insights from education administrators, arts education researchers, and artists.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22(4), 255-275. <https://doi.org/10.23317/kaae.2024.22.4.014>
- Cho, S. (2012).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music education in arts high schools.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4, 41-60.
- Cho, S. (2013). Effici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arts high school. *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 Technology*, 17, 205-225.
- Choi, E., & Shin, J. (2014).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music curriculums of arts high schools.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43(4), 141-161.
- Choi, E., & Shin, J. (2015). A study on the opinions of middle school principals in Seoul over the establishment of a Seoul public arts high school.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9(1), 47-67. <https://doi.org/10.24231/rici.2015.19.1.47>
- Chu, S. (2017). An analysis of the path dependency on Korea art high school policy after the 2000s.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2), 163-183.
- Chu, S. (2018).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 of the Korean arts high school system*. Korea University.
- Huh, J. (2023). An analysis of education policy and curriculum in art high schools. *Art Education Reviews*, 86, 187-206. <http://dx.doi.org/10.25297/AER.2023.86.187>
- Hyun, K., & Hong, H. (2016).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music curriculum of the arts high schools in Korea, the USA, Canada and Australia. *Korean Music Education*

- Society*, 45(1), 119-137.
- Jang, E. (2024). Analysis of high school non-national curriculum subject documents for media literacy.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41(1), 237-260. <https://doi.org/10.14333/KJTE.2024.41.1.11>
- Jang, G., Park, Y., & Oh, S. (2025). *Applying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o music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 Uhga.
- Jeong, O. (2020).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s and current affairs of arts high school.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8(1), 119-140.
- Kang, Y. (2011).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credibility of school autonomy and diversification polic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Kim, H. (2012). A study on relation and importance of art education and STEAM education. *Bulletin of Korean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13(5), 105-113.
- Kim, J., Lee, K., Cho, B., Lee, M., & Lim, Y. (2018). *A study on restructuring high school curriculum to adopt the credit syste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d.). *School information*. Retrieved May 2, 2025, from <https://www.schoolinfo.go.kr/>
-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d.). *Edunet*. Retrieved August 27, 2025, from <https://www.edunet.net/>
- Lee, J., & Lee, M. (2022). Exploring the suppor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high school specialized subject I.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5(2), 31-58. <https://doi.org/10.29221/jce.2022.25.2.31>
- Lee, K. (2015). *2015 Revised Subject Curriculum draft development study II: Music Curriculum*.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Lee, K., & Choi, N. (2014). An exploration of the directions for regular subject curriculum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rts high schools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2), 99-129. <https://doi.org/10.15854/jes.2014.06.45.2.99>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5). *2025 Implementation plan for promoting school arts education*.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Ministry of Education (2021). *Key features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2a). *Explanatory guide to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No. 2022-33. Ministry of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2022b). *Art course elective curriculum*. No. 2022-33 [Annex 22].

Ministry of Education.

- Park, J., & Kim, J. (2021). A study on organizing and operating elective subjects in music curriculum according to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9(2), 133-151.
- Park, M. (2018).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art based STEAM education in Korea. *Korean Elementary Art Education Association*, 53, 27-50. <https://doi.org/10.35657/jae.2018.53..002>
-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24). *Directions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the 2025 Curriculum for first year high school*.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 Yang, G. (2014). *The direction for improvement and the issues of diversification policy of high school*.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